



4면

옛 대한방직 부지 관련 시민 의견수렴 마무리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월 26일 화요일 (음 12월 14일) 제2705호

대표전화 (063)288-9700

## 사회적 연대로 위기 극복 전주시-양대 노총 '협력'

### 고용유지·일자리 창출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협약 양대 노총 대표자들 "착한 선결제 운동 적극 동참할 것" 김승수 시장 "코로나 경제위기에서 협약 이상의 큰 의미"

전주시와 양대 노총이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는 25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권기봉 한국노총전북본부의장, 박두영 민주노총전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시-양대 노총 사회적 연대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경기침체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위기와 관련하여 노동계가 고용유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고통을 감내하는 동시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도울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로 이날 협약에 동참했다.

양대 노총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

진 이웃들과 고통을 나누고 지속적으로 연대해 따뜻하고 품격 있는 전주 만들기에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한편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김승수 시장은 "전주시와 산하기관 4000여 공직자들이 지난주부터 동네 상권 곳곳에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양대 노총의 노조원들의 동참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크나큰 힘과 위로가 될 것"이라고 협조를 요청했다.

양대 노총 대표자들은 "벼랑 끝에서 함께 시간을 버티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연대의 정신으로

착한 선결제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 오는 3월 31일까지 70여 일 동안 진행되는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으로, 집이나 회사 근처 음식점에서의 선결제, 예술공연 티켓 선구매, 화훼업소 꽃바구니 비용 선결제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그간 10%의 캐시백이 지급돼왔던 전주시상품권의 혜택이 20%까지 주어지며 월 충전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 늘어났다. 오는 27일부터는 대기업, 금융기관,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과 라이온스, 로터리, 동자생단체 회원 등 민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김 시장은 "시와 양대 노총이 사회적 연대 협약을 맺은 것은 코로나 경제위기 상황에서 협약 이상의 큰 의미를 갖는다"며 "선한 경제활동을 통해 이웃을 구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양대 노총 노조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전주시-양대노총 사회적 연대 협약

2021. 1. 25(월) 전주시 한국노총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전북지역본부



25일 전주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권기봉 한국노총전북본부의장, 박두영 민주노총전북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시-양대 노총 사회적 연대 협약식'이 열렸다.

### "전북, 호남권 아닌 독자권역"

## 도내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 이뤄져야

### 민주 국가균형발전특위 전북 추진본부, 출범식 통해 "지역 특색 산업 발전 전략 통한 정립 필요" 목소리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추진본부' 출범식을 비대면 화상 방식으로 25일 진행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추진본부'는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지역위원장,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 행정부지사 및 6명의 자치단체장, 중앙당 지정 2명의 시의원 등을 부위원장으로, 이의 도의회 의장단 3명, 시군의회장 4명, 외부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날 출범한 전북 추진본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전북도만의 특색 있는 발전방안을 위해 적극적인 토론과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김성주 전북 추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지방소멸에 대한 당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하며 "전북만의 특색있는 발전방안과 전북의 독자권역 정립에 대해 다 같이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위원실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전북 명예 도민으로서 전북 발전을 위해 지역위원장 및 자치단체장, 전문가들이 한 뜻을 모은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전북 추진본부'가 출범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전북도는 도민들이 중심이 돼 전북도만의 독자권역을 만들어 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으로, 빠른 시일 내에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 전북도만의 독자권역을 만들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을 통해 각 지역위원장 및 자치단체장과 전문가들은 당과 중앙정부에서 전북도를 호남권이 아닌 독자권역으로 인정해야 하며, 전북도 내에서도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를 같이 했다.

또한, 호남권과 충청권으로 끼워맞추기식이 아닌, 전북만의 특색있는 산업 발전 전략을 통한 독자권역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전북도 독자권역으로 가 되, 특정 지역이 전북도 내에서 성장

과 성과들을 독식하지 않는 단일 권역으로 가야한다"면서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토론하고, 연구해서 확실한 모델을 제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전북 추진본부는 이후 권역별 토론회 및 민주연구원 주최 정책 페스티벌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전북 추진본부장인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위원실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준덕 국회의원(전주갑), 안호영 국회의원(남원·진안·무주·장수), 김수홍 국회의원(익산갑),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이원택 국회의원(김제·부안), 이환주 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현 남원시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 유진섭 정읍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최영일 전북도의회 부의장, 유재구 익산시의회 의장,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 김용문 장수군의회 의장, 이정자 김제시의회 의원, 소준노 우석대학교 교수, 김선광 원광대학교 교수, 신기형 전북대학교 교수, 최광수 우석대학교 교수, 이혜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가 비대면 화상 회의로 참석했다. /유호상 기자

## 농어민 공익수당, 올해부터 양봉농가·어가까지 확대

### 전북도, 90억원 예산 증액 신청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내달 1일부터 4월 말까지 지급은 9월 초 예정

전북도가 오는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읍·면·동 사무소에서 2021년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이하, 농어민 공익수당)을 신청받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행한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인 구 고용화와 청년 농어업인 진입 감소 등으로, 농어촌 마을이 공동화되는 상황 속에서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첫 시행이었던 지난해 도내 10만 7,000 농가에 약 643억원을 지역화폐

로 지급해 도내 농가는 물론이고 지역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됐다. 아울러, 전국 첫 주자인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마중물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올해 농어민 공익수당은 기존 지급 대상이었던 농가뿐만 아니라, 양봉농가와 어가(漁家)까지 지급대상이 확대 된다.

공익수당 예산도 지난해 대비 약 90억원이 증액된 706억원 가량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원조건은 신청연도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 ▲어업 관련 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 및 소급제조업 허가가 유효한 어가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양봉업을 등록한 양

봉농가이며, 지급액은 연 60만원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향후, 신청·접수가 2월부터 4월까지 마무리되면, 5월부터 9월까지 신청자에 대한 농어업경영체 등록 여부,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도 외 전출 여부, 한 세대 중부신청, 부부 분리 신청 여부 등의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8월 말까지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9월 초 지급할 예정이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첫걸음마를 뒀던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은 어느새 전국적인 대세 사업이 됐고, 관련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는 등 큰 반향을 일으켰다"라며 "신청 누락 농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사업 홍보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